



## 호주 Barossa, 사우디 Marjan, 그리고 카타르 LNG

### 코멘터리

#### LNG선 발주 호황은 2020년까지도 보인다.

① 지지난주 MOL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도 Minerva의 옵션 행사로 2019년의 LNG선 수주를 개시합니다. BIG3는 해를 넘긴 옵션과 LOI들이 당사의 보수적 집계에서도 20여척에 달합니다.

② 작년 가을 발표된 카타르의 32MTPA LNG 터미널 증설 계획에서, LNG선 신조 발주를 위한 한중일 조선사들에 대한 Berth 체크가 시작되었다는 보도입니다. 210k-CBM의 Q-Flex 또는 265k-CBM의 Q-MAX 타입 40여척을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이지만, 카타르 측은 구체적인 스펙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발주 시점이 제일 관심일텐데, 2023년부터 4개 Train이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때문에, 초기 발주는 늦어도 2020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일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러시아, 모잠비크와 함께 카타르 사이클까지 붙으면, 올해 LNG선 시장은 작년의 초호황을 또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시장의 해양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다수 사업들이 확정적으로 올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삼성중공업은 금요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내 인도 Reliance의 MJ FPSO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④ 삼성이 그 다음 노리는 호주 Conoco Phillips의 Barossa FPSO의 경우, subsea production system들의 입찰이 동시 진행되면서, 하반기 FPSO 발주 가능성도 높다는 신호를 줍니다.

⑤ 사우디 Aramco의 Marjan 등 brown field 확장 개발에서 수많은 패키지가 진행 중인데, McDermott과 Saipem이 일부 패키지를 가장 먼저 수주해, 후속 패키지들의 발주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Saipem이 경합 중인 30억\$의 GOSP-4 패키지 수주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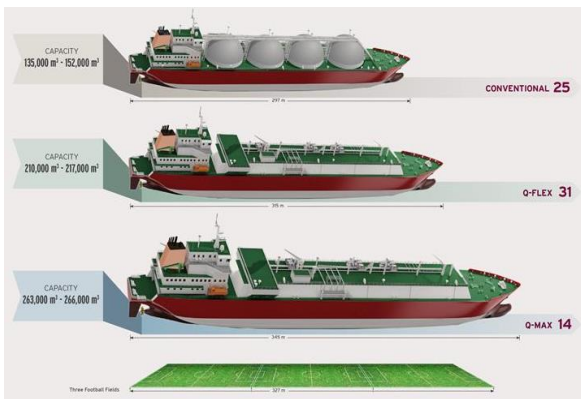
⑥ 호주 Browse 프로젝트도, 곧 Shortlist 3개 컨소시엄을 추립니다. 중국의 산 원가를 선호한다는 컨소시엄 파트너 Woodside의 언급이 있었지만, 파트너에 Shell도 있습니다. 아무튼 Browse 프로젝트도 진행형입니다.

올해 인도, 호주, 사우디 공사는 확정적이어서, 한국 조선의 해양 수주는 2018년의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중요한 4Q18 실적 골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가이던스에 준했고, 31일(목)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4Q18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건조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1분기 조선업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 ▶ Q-MAX LNG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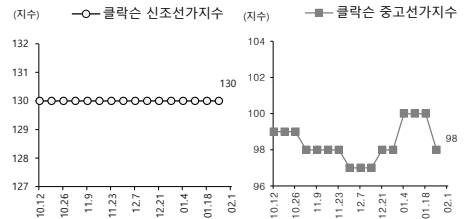
#### ▶ 2000년 중반 카타르 발주 현황

발주처	조선사	스펙	발주년도	인도년도	척수
Qatar Gas (Nakilat)	삼성중공업	Q-Flex	2006	2009	1
		Q-MAX	2006	2008	3
			2007	2009	4
			2009	2010	1
					3
					12
대우조선해양	Q-Flex	Q-Flex	2006	2009	3
			2007	2009	3
		Q-MAX	2006	2008	1
			2009	2	
					10
현대중공업	Q-Flex	Q-Flex	2006	2009	3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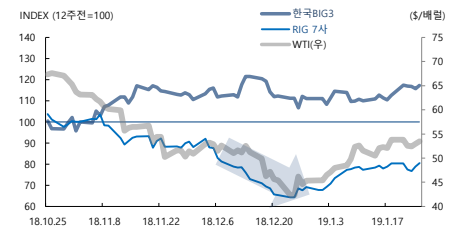
카타르의 Q-MAX 14척, Q-FLEX 11척 발주

###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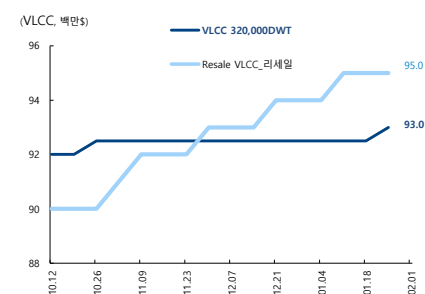
#### ▶ 중고선가지수 하락



#### ▶ 유가, RIG PLAYER, BIG3



#### ▶ VLCC 신조선가 또 상승: 리세일 > 신조



###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LNG: 2020년도 보인다」

- ▲ 카타르, Q-MAX, Q-FLEX 등 대형 LNG선 40척 발주를 위한 조선사 협의 개시
- ▲ 삼성중공업 Minerva 옵션행사로, 2019년 LNG선 수주 개시

#### 「돌아오는 해양」

- ▲ ConocoPhillips, Barossa Gas PJT 빠르게 진행: 삼성중공업 vs. Modco도 연내 결과 나올 것으로 당사 판단
- △ Browse FPSO, 4월에 8개에서 3개 shortlist로 압축
- ▷ Saipem과 McDermott, 사우디 Aramco의 Marjan 등에서 일부 패키지 수주
- △ Westwood, Offshore와 Drilling 시장이 돌아온다

#### 「IMO와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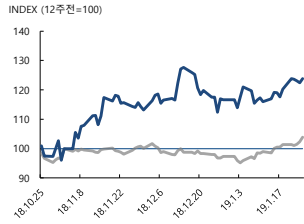
- △ Fujairah 항구도, open-loop scrubber 금지
- ▲ Braemar: PC 시장 강제 기대
- ▲ Euronav, 탱커 시황 자신감 피력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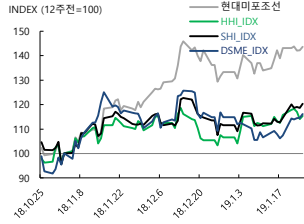


##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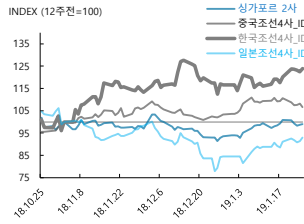
###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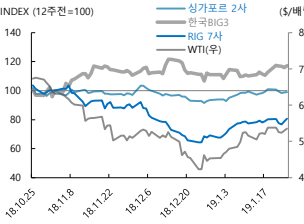
### ▶ 한국 조선4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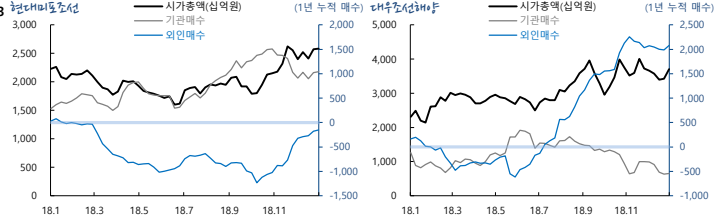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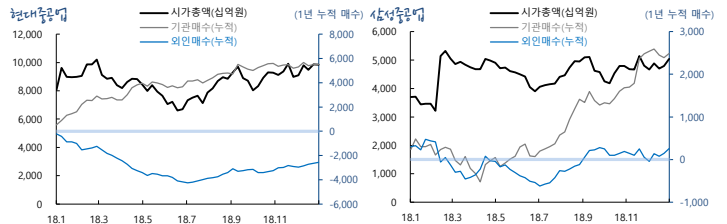
###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 ▶ 유가 → RIG 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한국 BIG3



## 조선 수급



##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0.6%	15.7%	22.6%		-19%	59%
	CRB INDEX		-0.8%	4.5%	-8.4%		-10%	8%
	Capital Link Container Index		3.6%	19.9%	1.9%		14%	-35%
<b>조선사</b>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8,018	-0.4%	11.6%	10.3%		3%	66%
	삼성중공업	4,444	5.0%	1.9%	10.1%		-4%	0%
	대우조선해양	2,999	8.1%	6.3%	12.9%		60%	18%
	현대미포조선	1,765	0.3%	11.0%	3.7%		16%	-11%
	한진중공업	252	43.0%	2.7%	5.9%		-56%	-47%
	싱가포르	KEPPEL	8,677	1.4%	8.6%	6.6%		25%
중국조선	SEBMCORP MARINE	2,794	2.4%	7.9%	2.4%		36%	5%
	CSSC	2,266	6.5%	8.0%	2.6%		46%	-41%
	CSIC	14,133	0.7%	5.5%	10.0%		30%	-29%
	CSSC OMEC	1,786	6.8%	2.1%	2.5%		65%	-63%
	YANGZUIJIANG	3,231	0.0%	12.5%	14.4%		12%	45%
일본조선	NAMURA SB	326	5.0%	12.1%	5.5%		37%	-46%
	MITSUI ES	1,412	0.0%	18.6%	1.1%		39%	-27%
	KAWASAKI HI	4,490	2.3%	18.8%	5.1%		40%	-28%
	SUMITOMO HI	4,089	0.3%	15.5%	0.8%		24%	58%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400	8.0%	5.1%	7.7%		21%
<b>엔진 / 부품</b>								
엔진	MAN	16,112	0.0%	0.1%	-0.8%		-1%	-3%
	WARTSILA	11,633	0.4%	6.0%	2.8%		-17%	5%
한국엔진	HSD엔진	126	10.3%	18.7%	44.4%		110%	249%
	STX엔진	175	7.1%	10.7%	-2.8%		-14%	37%
	STX중공업	69	26.4%	-24.1%	-68.6%		-84%	-93%
기자재	한국카본	269	2.6%	10.6%	6.7%		-2%	7%
	동성화인텍	188	3.2%	9.1%	-2.4%		-8%	94%
	세진중공업	163	2.3%	11.5%	-3.4%		3%	35%
	삼강엔텍	103	-5.6%	17.8%	1.9%		-1%	22%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b>기름들</b>									
RIG	TRANSOCEAN	5,312	1.1%	28.1%	-26.7%		-20%	-14%	
	SEADRILL	2,070	-5.1%	0.6%	-61.7%		-39%	-37%	
	DIAMOND DRILLING	2,371	-1.0%	20.1%	-34.3%		-32%	-56%	
	NOBLE	1,471	-0.6%	26.3%	-46.0%		-32%	-56%	
	ENSCO	3,200	1.3%	25.4%	-42.8%		-28%	-52%	
	ODFJELL SE-A SHS	335	-1.0%	3.6%	-9.4%		-2%	21%	
	ROWAN COMPANIES INC	2,037	3.2%	38.7%	-30.3%		-20%	-1%	
	OCEAN RIG LOGW INC - Dryship	2,806	0.0%	0.0%	-13.7%		-2%	-100%	
	IOC+	ExxonMobil	348,527	-1.7%	4.5%	-11.6%		-16%	-8%
		Shell	272,235	-4.7%	-0.8%	-9.3%		-5%	48%
BP		144,512	-3.1%	1.6%	-7.7%		4%	35%	
Total		167,925	-0.7%	4.9%	-9.0%		5%	16%	
Chevron		222,848	-1.0%	5.4%	-3.2%		-10%	31%	
ENI		68,344	-0.2%	5.8%	-5.3%		3%	10%	
Equinor		88,189	-1.9%	3.5%	-14.1%		6%	60%	
ENG. FEED.	SBM	3,674	-0.6%	17.0%	-5.8%		-6%	19%	
	TechnipFMC	13,494	-3.2%	18.6%	-20.2%		-30%	-7%	
	SAIPEM	5,485	-1.2%	22.5%	-17.3%		-2%	-30%	
	NOV	16,935	0.0%	16.9%	-24.5%		-19%	-6%	
	MODEC INC	1,745	-2.0%	17.9%	-28.5%		-18%	73%	
	WORLEY PARSONS	4,066	3.5%	26.3%	-16.8%		2%	318%	
	<b>해운</b>								
해운	MAERSK DC Equity	28,327	-1.5%	7.8%	6.5%		-21%	0%	
	SHIP FINANCE INTL LTD	1,686	-0.4%	5.4%	-5.6%		-17%	-12%	
	CLARKSON PLC	1,093	7.6%	20.1%	-1.5%		-16%	24%	
	EURONAV NV	1,816	-1.4%	6.6%	15.1%		-7%	-38%	
	GOLDEN OCEAN GROUP LTD	1,311	-8.0%	-2.7%	26.0%		-24%	65%	
	FRONTLINE LTD	873	-5.9%	-6.7%	17.5%		12%	-50%	
	NORDIC AMERICAN TANKERS LTD	288	-3.2%	0.0%	11.5%		-14%	-83%	
	KINDT OFFSHORE PARTNERS LP	729	0.3%	5.4%	-8.8%		-4%	35%	
	LNG LPG	HOEGH LNG HOLDINGS LTD	410	-5.7%	-6.1%	-6.7%		-38%	-57%
		GASLOG LTD	1,523	-3.7%	3.8%	14.5%		-10%	135%
GASLOG PARTNERS LP		1,079	-1.6%	8.6%	14.1%		-8%	47%	
GOLAR LNG PARTNERS LP		908	-4.1%	1.4%	-3.9%		-35%	-5%	
BW Offshore		1,365	-1.8%	23.5%	29.3%		-2%	61%	
DORIAN LPG LTD		403	-4.8%	-0.2%	26.6%		-21%	-45%	
EXMAR NV		425	0.3%	5.3%	8.3%		2%	-29%	



## ASP & 실적관련(국내외)

- ▲ VLCC 또 상승했지만 신조선가치수 제자리, 중고선가는 컨선 약세로 지수 2p 하락한 98p 기록  
신조선가는 파나마스 벌크가 \$28m, VLCC 탱커가 \$93m을 \$0.5m 올렸지만, 지수는 130p 제자리였고  
중고선가는 컨테이너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도 2p 하락한 98p를 기록

##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당사 의견**

## ▶ IMO 2020

### △ Fujairah 항구도, open-loop scrubber 금지

- Fujairah 항구는 중동의 원유 운반을 위해, 지구에서 가장 바쁜 터미널 중 하나  
중국,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벨기에가 Open-Loop Scrubber를 금지하고 있고  
독일, 아일랜드, 북미도 일부 제한 중
- ☞ 저번 싱가포르 BAN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Scrubber의 경제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 해당 ECA에서만 MGO를 사용하고, 망망대해에서 Scrubber를 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 ☞ Scrubber보다는 LNG-Fuel이 확산될 수록 한국 조선에는 더 긍정적이지만,
- ☞ Scrubber라는 싸고 편한 초기 유인이 있어야, 규제 자체가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 IMO 2020 규제에 따른 신조 시장의 변곡점이 임박했습니다.

## ▶ LNG

### ▲ 카타르, Q-MAX, Q-FLEX 등 대형 LNG선 40척 발주를 위한 조선사 협의 개시

- 작년 가을 33MTPA의 LNG 수출 터미널 투자를 발표했던 카타르: 이번 뉴스 업데이트에서는 32MTPA, 2023년부터 Onstream  
한국, 중국, 일본 조선사들의 야드 슬롯을 체크하기 시작: 아직 구체적인 선박 요구사항은 밝히지 않음  
유관자는 Q-FLEX와 Q-MAX 사이즈 40여척을, 4개 train이 완공되는 2년에 걸쳐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귀뜸: 딱 출처는 30척이라고도 설명  
카타르는 2000년대 초반 Q-ship Program을 진행해, 한국 BIG3가 45척을 건조한 바 있음  
또한 LNG 터미널 확장에 맞춘 40여척 외에, 선대-리뉴얼 수요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카타르는 2017년 82MTPA LNG를 수출하며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이었지만, 2018년 호주에게 1위를 뺏겼을 가능성도 대두됨  
카타르 확장 프로젝트의 수요처는, 올해 FID가 예상되는 모잠비크, 러시아 Artic LNG2, 엑슨모빌의 Golden Pass LNG 등과의 경쟁도 치루어야 하는 상황
- ☞ 2023년 인도물이 필요하다면, 연초~연말 인도 시점에 따라 빠르면 2019년 하반기, 늦어도 2020년 계약이 예상됩니다.
- ☞ 당사가 강조하는 2019년의 LNG선 강세 지속에, 카타르 프로젝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렇게된다면, LNG선 발주 사이클은 2019년 뿐 아니라, 2020년도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 [18년10월] ▲ 카타르, LNG 수출 프로젝트 확대 계획: 무려 33MTPA!  
- 현재 77MTPA를 수출 중인 카타르는, 4번째 Train 확장공사를 통해 2023년까지 110MTPA로 수출 규모를 확대 계획  
- 이는 과거 100MTPA 계획보다도 더는 것임: 중국, 인도에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준비  
- Qatar Petroleum은 Chiyoda가 FEED를 마친 후, 2019년말 FID 계획  
- 또한 Total, Shell 등의 오일메이저들과의 지분 참여도 논의 중  
>> 33MTPA는 50척~60척의 LNG선 수요를 만들어내는 대규모 사이클입니다.  
>> 당사가 집계 중인, 마케팅 중인 LNG 수출터미널에도 빠져있던 새로운 수요입니다.  
>> LNG 시장은 지난 2011년~2015년 사이클보다 더 강하게, 어쩌면 더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삼성중공업 Minerva 옵션행사로, 2019년 LNG선 수주 개시

- 작년초 대우조선해양에 LNG선을 발주한 후, 10월 삼성중공업으로 변경해 또 1척+1척을 발주한 Minerva는  
옵션 1척을 행사: BOR 0.07%의 Mark III FLEX를 채택  
LNG 시장 관측자는, 올해 상반기 투기발주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지만  
올해 다수의 LNG 수출 터미널 FID가, 언제든 투기발주를 재촉시킬 수 있다고도 해석 중
- ☞ 보냉재 타입 Mark III-FLEX와, 기존 Gaslog팀과의 관계가 건초쳐 변경의 트리거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 [18년10월] ▲ Minerva, 연초 DSME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발주  
- 연초 DSME에 2척을 발주하며 LNG 시장에 진입한 Minerva는 이번에 삼성중공업에 또 2척을 발주: 보냉창에 Mark III-FLEX를 적용해 gaslog 이후 후속  
- 1분기에 2021년 인도로 DSME에 발주했는데, 이번에 건조 조선사를 변경한 이유로  
1) Minerva가 원래 삼성중공업과 상선을 건조해온 관계  
2) LNG 운영을 위해 GasLog의 인력을 영입했는데, GasLog는 원래 삼성중공업과 LNG선을 많이 건조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



▶ 해양

▲ **ConocoPhillips, Barossa Gas 프로젝트 빠르게 진행: 삼성중공업 vs. Modeco 연내 결과 나올 것으로 당사 판단**

ConocoPhillips는 subsea production system 등의 패키지 입찰 및 계약을 곧 앞두고 있음

- 1) christmax tree, wellhead, control system, subsea well intervention system, manifolds 등의 입찰을 19년초 시작해 역시 19년초에 마칠 예정
- 2] subsea umbilicals, flowline, riser, subsea gas export pipeline의 PQ를 마침: 본계약은 19년말
- 3] 또한 Driller들에게 드릴링 캠페인 진행을 위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Technip vs. MODEC의 turnkey FPSO vs. Leased FPSO 경합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

FEED를 진행 중인, 양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프로포절을 제출할 예정

- ☞ 금요일 실적 발표에서, 삼성중공업은, 1분기 인도 Reliance의 MJ FPSO 후속으로 3분기 Barossa FPSO, 그리고 나이지리아 ZabaZaba를 타겟 프로젝트로 꼽았습니다.
- ☞ 삼성중공업은 올해 2~3개 프로젝트에서 20억\$ 안팎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 및 기대합니다.

[16년9월] ▲ **ConocoPhillips가 Barossa의 subsea 2019년초 선정 계획 밝혀: FPSO도 후속으로**

-ConocoPhillips의 Barossa gas field 개발 프로젝트에서 subsea production system 공급자를 2019년초에 선정하겠다고 밝힘

-이외에 3가지 프로젝트인 2] FPSO, 3] subsea umbilicals flowlines & risers와 4] subsea export pipeline도 진행 형

-phase 1은 6개 유정에서 생산을 시작해, 8년 후 4개 유정이 추가되며 phase 2에 진입 예정

-FPSO는 800mcf/d[6.4MTPA]의 가스 6천b/d의 컨덴세이트 생산용량

-FID는 2019년말

-JV는 ConocoPhillips 37.5%, SK E&S 37.5%, Santos 25%의 파트너로 구성

[16년06월] ▲ **Barossa FEED 2사 선정: TechnipFM+SHI의 신조 vs. Modeco의 Lease 경합**

-미국 ConocoPhillips는 FEED 병렬 수행할 2사를 모두 선정: 영구 Mooring + 4만톤 탑사이드 예상

-Barossa는 호주에서 2013년 standalone으로 진행되는 첫 프로젝트

-FID는 2019년말 예정

[16년04월] ▲ **Barossa FEED Shortlist 두곳에 삼성중공업 컨소시엄 확정 & Lease 중 Modeco 유력**

[16년03월] ▲ **Barossa FPSO 진척: 곧 FEED 시작**

[01월5주] ▶ **ConocoPhillips의 Barossa FEED 2사 곧 선정**

[01월1주] ▲ **Barossa FPSO에 4개 숏리스트 곧 선정: 2Q18 FEED 시작**

[17년09월] ▲ **ConocoPhillips, 북호주 Caldita-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

[17년07월] ▲ **Caldita-Barossa FEED 입찰 7월 → 2018년초 선정**

[16년03월] ▲ **호주의 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

△ **Browse FPSO, 4월에 8개에서 3개 shortlist로 압축**

4월 3곳으로 압축해, 5월 technical, commercial proposal을 받는 스케줄

제작사로, 한국의 BIG3와 중국 COOEC, CIMC Raffles, Sembcorp Marine, SapuraKencana(말련)의 8곳이 경합 중이며

이들은 TechnipFMC, Fluor, Wood, KBR, Aker Solutions 등과 팀으로 경합에 참여: Cosco만 단독 입찰

작년 Woodside의 CEO는,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과 같은 원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한 바 있음

2개의 FPSO를 한 야드에 모두 맡길 예정: 각각 4.5만톤, 10~12MTPA 가스 생산 캐파

현재 TechnipFMC, Fluor, Wood, KBR 등은 FPSO Concept definition 계약으로 경합 중

Browse는 Torosa, Brecknock, Calliance의 3개 필드로 구성된 750m Deep-water이며, 13.9TC 가스 매장량

Woodside 30.6%, Shell 27%, BP 17.33%, MiMi 14.4%, PetroChina 10.67% 지분 보유

☞ 중국의 싼 원가.. 글썄요.. 무리한 수주로 해양 빅베쓰와 위기가 불과 몇년 전이어서,

☞ 시장은 양질의 수주를 바랍니다.

[18년10월] ▲ **Woodside, Browse pre-FEED 개시**

- Woodside Petroleum은 타겟 스케줄에 맞춰 FPSO 2기의 컨셉 디자인(pre-FEED)을 실시하고, 후속 FEED 입찰을 위한 PQ를 실시

- 이번달 KBR에 컨셉 디자인을 맡겨 2019년 상반기까지 수행 후, 후속으로 FEED 입찰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

- FEED에는 pre-FEED를 수행하는 KBR, Fluor, TechnipFMC, Wood가 경합

- 9만톤의 FPSO는 최대 1bcfd(7.5MTPA) 생산 CAPA로 2기 함께 10~12MTPA의 LNG 생산을 계획

- Woodside는 탑사이드와 Hull을 다른 야드에서 따로 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Browse JV의 지분은 Woodside 30.6%, Shell 27%, BP 17.33%, MiMi 14.4%, PetroChina 10.67%

- Browse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Scarborough는 3개 대형 패키지를 맡기기 위한 2개 계약처 입찰을 PQ 없이 진행 중

[18년08월] ▲ **Browse pre-FEED 경합: FID는 2021년**

- IntecSea Engineering이 conceptual work를 마쳤고, 이제 pre-FEED 입찰이 시작됨: 몇주전 ITB(Invitation To Bid) 발부

- Fluor, KBR, TechnipFMC, Wood Group이 경합 중이며, pre-FEED 1년을 마친 후, 4Q19 FEED가 시작될 예정

- 사업의 FID(Final Investment Decision)은 2021년 예정

- 2기의 9만톤 Floater가 투입되어 10~12MTPA의 가스를 생산 목표

- Hull은 한 곳 야드에서, 탑사이드는 여타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형태로 될 것임

- Woodside의 CEO는, 예전에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국 조선사들이 담당해왔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원가 구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Woodside 30.6%, Shell 27%, BP 17.33%, MiMi 14.4%, PetroChina 10.67% 지분 보유



## ▷ Saipem, Aramco에서 13억\$ 일부 패키지 따냄

Saipem이 사우디 아람코의 2개 offshore 계약을 따냄: Berrir, Marjan  
2ro vmfhwprxmsms 16억\$ 이상이라는 평도  
이 2개 해양 프로젝트는 작년에 제안되었고, 사우디 Aramco의 LTA(Long-term agreement)에 속한 제작사들의 한정 입찰  
첫번째 Berri incremental project는 10ro 오일 플랫폼 데크 모듈  
두번째 Marajan의 Package-3은 3개의 offshore water injection production deck module, tie-in platform 1개  
다수의 패키지들이 동시에 입찰 중이어서, 현대중공업이나 한국 조선이 노리는 프로젝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 McDermott, Aramco의 Marjan에서 주요 패키지 따냄

미국 McDermott이 \$600m 규모 프로젝트를 LTA 자격으로서 따냄  
1개의 tie-in offshore platform과 6개의 oil production deck들  
역시 현대중공업-saipem이 경합하고 있는 대형 공사는 아닙니다.  
메인 프로젝트 GOSP-4는 10만톤의 대형 구조물입니다.

## [01월2주]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입찰: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등 3파전

- Marjan은 사우디 Aramco의 Offshore gas-oil separation platform complex 구축 사업: \$3십억 이상, GOSP-4로 불림  
: Accommodation platform, tie-in platform, gas compression platform, production platform, auxiliary platform, flare platform, subsea pipeline 등으로 구성
- 10만톤 구조물의 GOSP-4 complex는 475,000b/d, 750mcf/d를 생산 예정
- Technical/Commercial Offer가 작년 12월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2월 중순 정도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업데이트
- 3개 컨소시엄으로 압축해 경합 중인데, 1) 인도 L&T + 아부다비 NPCC, 2) 이테리 Saipem + 현대중공업, 3) 미국 McDermott + 중국 COOEC가 참여 중
- 이외에 Subsea 7,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6개 회사도 일부 물량에 대해 입찰에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대형 해양 구조물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인도/중동 사업자들도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라는 평가
- 10만톤 규모의 구조물 및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최근 진행한 사업 중 가장 큼
- Marjan의 전체 사업 규모는 Onshore와 Offshore를 합쳐서 \$12십억에 달함: GOSP-4 외에 2개~3개, \$4t십억 규모의 offshore 패키지도 별도로 입찰 중
- 최대 5개, \$5십억의 Onshore 패키지도 경합 중
- GOSP-4는 GOSP-2와 3에서 10km 이내에 입지하며, Tanajib Onshore 플랫폼에서 북동쪽으로 85km에 입지

## [01월2주]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외에, 2개 패키지 경합: 8개 회사 + 한국 BIG3

- Marjan(GOSP-4 Facility)외에 추가 2개의 패키지 경합도 진행 중
- 사우디아람코의 2개 Offshore Package(\$3십억~\$4십억)에, 8개 사업자들이 참여 중: Technical/Commercial Offer를 1월말까지 제출할 예정
-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인도 L&T, 말련 Sapura Energy, 중국 COOEC, 미국 McDermott, Saipem, Subsea 7, 아부다비 NPCC, 영국 Lamprell로 전해짐
- 이 입찰처들은 2개 패키지 중 한개나 두개 모두에 참여 중
- 또한 한국의 조선 BIG3도 2개 패키지에 모두 참여 중인데, 단독 입찰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짐작
- 패키지1은 3개의 tie-in platform, 9개의 WHP, 200km subsea pipeline 등으로 구성
- 패키지2는 GCP(Gas cap production) network: 2개의 tie-in platform과 2개의 GCP WHP
- Marjan과 2개의 패키지 이후에도, Aramco는 올해 하반기 Zuluf Offshore Oilfield Redevelopment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할 계획

## △ Westwood, Offshore와 Drilling 시장이 돌아온다

영국의 컨설턴트 기관 Westwood는 offshore drilling market의 개선세를 전망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고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일컴퍼니들이 북서유럽, 남미를 중심으로, 드릴링을 재개한다고 판단  
Total은 2019년 22개의 유정 탐사: BEP \$30/br의 남미 Guyana에 집중  
그외에 Equinor가 15개, BP, Cairn Energy, Shell, Aker BP, Eni, Repso, Chevron, Hess 등도 12개 미만의 드릴링 계획이 있다고 설명  
Schlumberger의 CEO도 offshore market이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  
브렌트유 기준 \$60/br에서 프로젝트들 진행에 가시성이 보임: 유가 바닥을 \$50/br로 짐작  
2019년의 deep-water 투자는 5%~10%로 늘 것으로 전망: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기존 인프라에 tie-back 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중심  
Westwood Global Energy Group은, 2018년은 2017년보다 조금 감소한 51개의 프로젝트 사업허가가 떨어졌지만, 올해 90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  
시장의 CAPEX도 전년 대비 8%~10% 늘 것으로 전망: 브렌트유 밴드는 \$50/br~\$80/br

## ▶ 기타

### ▲ Euronav, 탱커 시장 자신감 회복

18년11월부터의 VLCC dayrate가 \$43,000/day로 2016년 수준을 회복: 탱커 시장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맞아 떨어짐  
장차 오일 수요, 톤마일 확산, 부족한 선박 공급에 따라 회복의 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  
미국-중국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원유 도입도 다변화되었고 톤마일 피해는 없었다고 전망  
또한 연초의 탱커 발주 러시도 비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VLCC 발주는 2017년 54척에서 2018년 40척으로 감소  
탱커 선주들은 가장 빨리 IMO 2020 환경에 베틱 중이며, 현재 신조선가 상승에도 다수 선주들의 투자 유인이 있다고 평가  
2019년 탱커 시장은 강세로 전환합니다.

### ▽ Braemar: 가격과 디자인 불확실성이, 탱커 발주 러시 잡을 것 & 운임은 강세 예상

년초부터의 탱커 발주 러시에도, Braemar 브로커리지는 의미있는 수준의 탱커 신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이는 탱커의 신조선가 상승, 2020년 IMO 황산화물 규제에 적합한 선박 디자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설명  
1) 신조선가는 2017년을 바닥으로 상승했는데, 현재 표준 VLCC가 \$93m이어서, 과거 D/F 장착 \$90m보다도 높은 상황  
2) 선박 디자인도, 2020년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미래 선박 디자인이 여전히 조선사/기자재 업체들이 고민 중인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봄  
올해 VLCC 66척, Suezmax 30척, 아프리카막스 25척, LR2 27척, LR1 14척, MR 78척이 인도 예정  
신조 발주의 위축과는 별도로 4Q18 VLCC \$50천/일을 예상: 2020 자유항유 생산을 위해 Refinery 가동률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을 낮았을 때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 Braemar: PC 시장 강세 기대

자유항유[COMPLIANT DISTILLATES]를 벵커링 허브에 운반하기 위한 Product의 톤-마일 증가를 예상  
IMO 2020는 clean tanker의 수요를 2019년 기준 0.5% → 3.9%로, 2020년 2.2% → 5.2%로 끌어올릴 것으로 언급  
IMO 2020에 따른 급격한 자유항유 사용으로, PC의 배분을 위한 톤-마일 증가를 예상합니다.  
현재 PC선 잔고가 10% 안팎인 가운데, 해체를 감안하면, 2년간 9.3%의 물동량 증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 ▽ COT 탱커 처녀 운항에 Product 운반으로, PC 시장 단기 약세

올해 1월과 2월에 최소 4척의 VLCC, 3척의 수에즈막스, 1척의 아프리카막스가, 아시아-유럽 항로로 가솔린을 운반: 최근 증가세  
또한 후속으로 VLCC 2척, 수에즈막스 3척, 아프리카막스 2척도 비슷한 운항을 할 예정  
이는 아시아에서 신조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  
통상보다 처녀 운항에서 CPP(Clean petroleum products) 운송이 많아진 것은, 북미의 원유 수출 증가와 유럽의 가솔린 프리미엄 강세 때문  
아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가솔린 스프레드 수익을 얻고, 이후에는 북미 원유 수출 증가로 더 많은 물량이 있는 Atlantic 원유 운반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함  
일단 LRI가 가장 큰 물동량 감소 영향을 받지만, 캐스캐이딩으로 MR도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 ①Hyundai Samho HI→Unknown, TK(158k) 2척

- 15년만의 수에즈막스탱커 발주이며, 용선처는 Chevron, 2020년 하반기 인도
- 158k-DWT의 신조선가는 \$130m으로, 척당 신조선가는 \$65m으로 클락슨 \$61.5m을 크게 상회
- 수에즈막스 탱커는 2017년 21척, 2018년에는 9척만이 발주되었을 뿐: 작년의 수에즈막스 스크랩은 23척이나 됨
- Tsakos는 2003년~2004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전 수에즈막스 탱커를 여전히 트레이딩 중이며, 지난 20년간 45억\$, 80척의 신조투자를 한 선주
- 최근에는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아프리카막스 탱커를 발주한 바 있고, 2018년에도 대한조선에 2척의 아프리카막스 탱커를 발주
- 지난주에는 TEN과 2013년 건조[2012년 \$52m에 리세일 매입] 157k-DWT을 18개월, \$25천/일에 단기 용선 따냄

#### ②Daewoo (DSME)→Oman Shipping Co, TK(300k) 2척

- Sinokor는 2021년 인도로 320k-DWT VLCC 4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
- 또한 Oman Shipping도 2021년 인도의 VLCC 2척을 계약하고, 옵션 2척도 발주
- 옵션까지 행사될 경우, 이번 수주로 DSME는 수주목표의 10%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하게 됨
- 다만 신조선가는 \$91.25m으로 클락슨의 \$92.5m보다 낮음
- 1. Oman Shipping: 현재 40척(20억\$)의 선대 중 VLCC는 16척
- 10년전 VLCC 10척을 발주해, HHI와 DSME가 각각 5척씩 수주한 바 있음: 그 이후 10년만의 탱커 발주
- 당시 DSME에 발주한 5척 중 마지막 1척은 LNG선으로 계약변경한 바 있음

#### ③KHAN→V. L. Enterprise, PTK(2800) 1척

N/A

###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 CMA CGM, 중국 조선사2곳에 15,000-teu 11억\$ 발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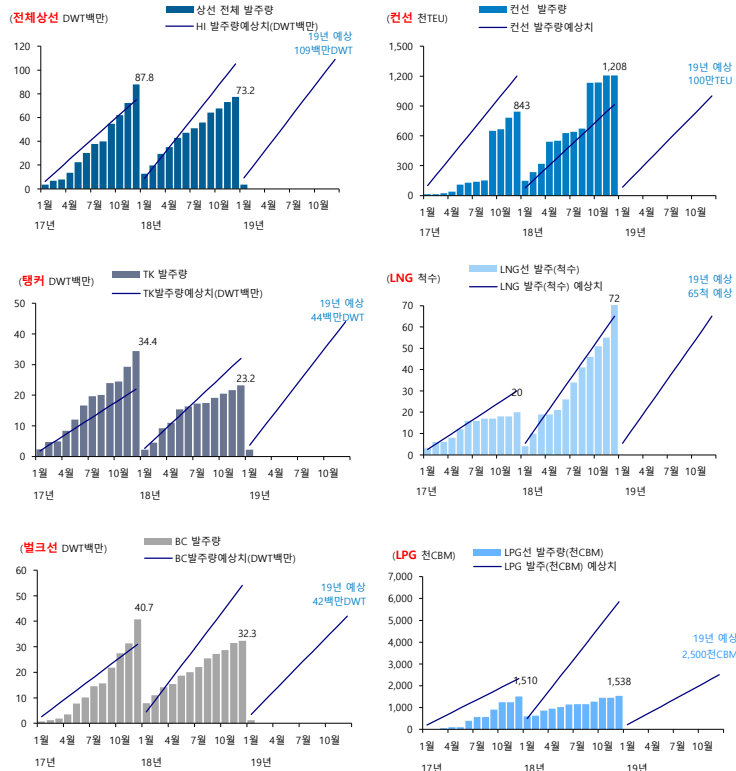
- OOCL, COSCO와 함께 Ocean Alliance의 CMA-CGM은 15,000-teu 10척을
- 중국 후동중화와, 외교조선소에 나누어 발주할 것으로 전망
- 이 두 조선사는 CMA-CGM의 23,000-teu 건조처이기도 함
- ☞ 조선사의 경쟁력이라기 보다는, 캡티브 고객을 놓친 것 때문입니다.

#### ▲ 삼성중공업 Minerva 옵션행사로, 2019년 LNG선 수주 개시

- 위의 LNG 섹션 참조

###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선종	크기	인도	척수
<b>19년01월1주</b>								
BIG6	Daewoo (DSME)	18.12.27	유럽	Alpha Gas	LNG	174k cu.m.	2021	1
		18.12.14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21	1
중국	Jiangnan SY Group	18.12.30	중국	Wang SW Marine	LPG	86k cu.m.	2021	1
		18.12.28	아시아	Evergreen Marine	CONT	3k TEU	2021	4
중국	CSC Jiangdong	18.12.28	중국	Shanghai Haiy Ship	BULK	13k DWT	2020	4
<b>19년01월2주</b>								
BIG6	Samsung HI	18.12.28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1
한국	Daehan Shipbuilding	18.9.28	유럽	Wan-Yeoung Ship	TK	158k DWT	2020	2
	Samkang M&T	18.12.31	한국	Hyodong Shipping	PTK	4k DWT	2020	1
중국	Guangzhou Yamen	18.1.24	아시아	Chembuoco Pan	PTK	0k DWT	2018	1
	Jiangsu Zhenjiang SY	18.10.1	유럽	UWL	해양설치	0k Deck mm <sup>2</sup>	2019	1
일본	Imabari SB Saijo	18.10.1	유럽	Naxos Acquisition	TK	311k DWT	2021	2
	Kawasaki HI Sakaide	18.12.1	아시아	Wishon Marine Group	BULK	61k DWT	2021	1
	Honda HI	18.7.1	일본	Unknown Japanese	CONT	40k TEU	2019	1
	Honda HI	18.2.1	일본	Unknown Japanese	CONT	0k TEU	2019	1
<b>19년01월3주</b>								
BIG6	Hyundai Mipo	18.11.26	아프리카	GenialShip Minerva	PTK	50k DWT	2020	4
	Daewoo (DSME)	19.1.11	Unknown	Unknown	TK	300k DWT	2020~2021	4
중국	Dalian Shipbuilding	19.1.15	중국	AVIC Leasing	BULK	85k DWT	2021	10
	CSSC Guangxi	19.1.13	중국	Haihan Zhaogang	LPG	5k cu.m.	2020	1
중국	Beihai Shipyard	19.1.10	중국	Shandong Shipping	BULK	210k DWT	2021	2
	Chengxi Shipyard	18.12.1	아시아	Wah Kwong Ship	BULK	82k DWT	2021	2
		18.11.1	북미	Dole Fresh Fruit	CONT	2k TEU	2021	2
			유럽	Islandoff Carries	BULK	22k DWT	2021	1
			북미	Mitsui-Sama Ship	BULK	40k DWT	2020	1
			북미	Foremost Marine	BULK	85k DWT	2021	2
<b>19년01월4주</b>								
BIG6	Hyundai Samho HI	19.1.18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20	2
	Daewoo (DSME)	19.1.18	중동	Oman Shipping Co	PTK	300k DWT	2020	2
한국	KHAN	18.11.19	아시아	V. L. Enterprise	PTK	3k DWT	2020	1
중국	Shanghaiqian SB	19.1.15	중국	AVIC Leasing	BULK	85k DWT	2020~2022	10



## 국내 보도

### ▶ 국내 수주

#### ▷ 대형조선 잇단 수주...조선업계 기분 좋은 출발

<https://bit.ly/2FRW3L1>

대우조선해양은 새해 들어서만 6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고 현대중공업그룹도 최근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오만의 국영 해운회사인 OSC(Oman Shipping Company)로부터 30만 t 급 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  
이 선박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4분기까지 선주에게 인도  
또 이번 계약에는 추가 옵션 물량이 1척 포함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음  
계약금액은 4095억 원으로 해당 선박은 2021년 2월 말 선주에 인도될 예정  
대우조선해양이 20일까지 수주한 6척 선박의 가격은 5억5000만 달러(20일 환율 기준으로 한화 6173억 원) 규모  
현대중공업그룹도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 원 규모의 15만8000 t 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  
수주 선박은 길이 274m, 폭 48m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인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지난해 대비 21% 높은 159억 달러(17조8400억 원가량)로 잡았음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시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현대중공업그룹의 설명

### ▶ 공통 보도

#### ▷ 은성수 수은 행장 "올해 62조원 지원...수출 증기 돕겠다"

<https://bit.ly/2SasbPT>

수출입은행(수은)이 올해 총 62조원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  
지난해보다 약 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  
은성수 수은 행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이 없어서 수주를 못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발표  
산업별로는 △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건설·플랜트는 단순 도급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자원은 리튬·구리 등 4차 산업 전략광물과 주요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조선·해운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와 해운사 선대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조선업은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생존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조선사별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수은이 RG(선수금환급보증)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  
그는 "지나치게 저가 수주하면 RG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교훈"이라며  
이 원칙을 지키되 중소 조선사가 회생 가능한 수주를 한다면 최대한 발급하도록 균형감 있게 하겠다고 언급

#### ▷ 한국 조선업, 7년만에 中 제치고 '수주 1위' 탈환

<https://bit.ly/2FQ71AU>

한국 조선업이 지난해 전 세계 선박수주 1위 자리를 탈환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국에 선두 지위를 뺏긴 뒤 7년 만에 거둔 쾌거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세계 조선소 현황(World Shipyard Monitor)'에서 지난해 한국 선박수주량이 1263만CGT로 1위를 차지  
지난해 세계 선박발주량은 2860만CGT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4.2%를 기록  
한국이 세계 선박수주량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  
2011년 한국은 40.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중국(34.9%)을 눌렀지만, 2012년 다시 1위 자리를 내줌  
2016년엔 '수주절벽'이 닥치며 점유율이 16.7%까지 떨어졌음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 70척 중 66척(94%), 20만dwt 이상의 초대형 탱커인 VLCC 39척 중 34척(87%)을 수주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선주사들이 한국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

### ▶ 현대중공업 보도

#### ▷ 현대삼호중, 올해 첫 선박 명명식..."44억달러 수주 목표"

<https://bit.ly/2G15NCe>

현대삼호중공업은 2019년 첫 번째 선박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  
지난 18일 영암조선소 2안벽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상균 사장을 비롯해 선주사인 싱가포르 선택의 사주 파이퀵 등 80여명이 참석  
이날 이름이 붙여진 선박은 지난 2017년 4월 싱가포르 선주로부터 수주한 30만t급 원유운반선 2척  
선주사 사주 여동생인 파이구아트훈 여사에 의해 '퍼시픽 엠'(PACIFIC M) 호로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LNG선과 컨테이너선 등 총 35척의 선박을 인도해 매출 3조4000억원과 수주 44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

#### ▷ 현대중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조합원 62.8% 반대

<https://bit.ly/2Uj3WfS>

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음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문구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다른 3개 분할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초 잠정합의안 도출 후 한 달만인 25일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나 부결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기본급 동결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음



## ▷현대중, 창립 후 첫 SOS...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https://bit.ly/2HAdeCl>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지난해 8월 해양플랜트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업부 전체 인력에 대한 유급 휴직이 불가피  
대상 인원은 약 600명 수준으로 알려짐  
지원 요청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계속될 예정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부 도크가 가동 중단됐던 현대중공업은 정부지원금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지만 조건 불충족, 노사 간 마찰 등 여러 이유로 무산  
정부지원금 없이 회사가 거친 파고를 뚫고 나갔던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도 한 몫을 담당  
한편, 한때 조선 3사를 강타했던 순환휴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진행 중인 순환휴직 인원이 전무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인력에 한해 휴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작년 4천93억원 영업적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5115500008?input=1195m>

삼성중공업은 작년 연결기준 4천93억원의 영업적자와 3천88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  
매출액은 5조2천65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4% 감소  
회사 측은 "조업 물량 축소 지속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

## ▶ 대우조선해양 보도

N/A

## ▶ 중소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 ▷한진중공업, 남양주 재개발사업 수분양자에 145억원 채무보증 결정

<https://bit.ly/2G8mhsn>

한진중공업은 '남양주 지검도농1-3구역 재개발사업' 수분양자에 145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  
채무금액은 자기자본대비 2.74%에 해당되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필리핀 정부 인수설...가격 제한폭까지 '급등'

<https://bit.ly/2RiogMv>

지분 99.99%를 보유한 중속회사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필리핀 정부나 외국 기업 등에서 인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  
지난 8일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1000원선이 무너졌던 한진중공업 주가는 10여 거래일 만에 주가를 회복  
업계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를 매각하면 재무 상황 등이 개선돼 긍정적으로 봄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필리핀 정부에서도 인수 의사를 밝힌 점이 한진중공업에 플러스 요인  
필리핀 정부외에 외국 기업도 숙련된 저임금 직원이 있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눈독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매각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음

### ▷나신평, HSD엔진 신용등급 'BBB-'로 하향

<https://bit.ly/2G3llib>

나이스신용평가는 HSD엔진의 장기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  
등급전망은 '부정적' 부여  
매출감소 및 저조한 영업수익성 지속, 향후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저하된 재무안정성 개선 지연 전망 등을 반영  
전방산업인 조선업 침체 장기화로 회사는 점진적인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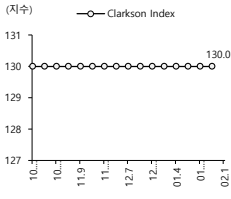


# Hi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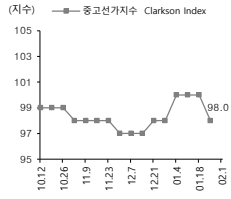


##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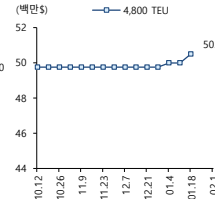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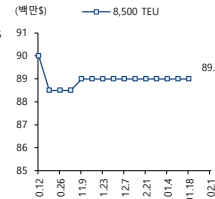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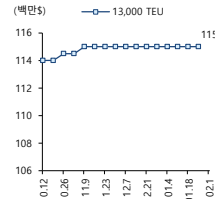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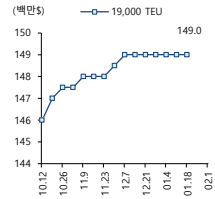
###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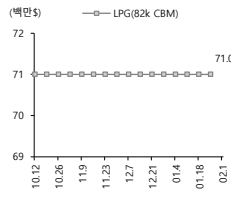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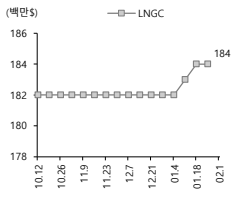
###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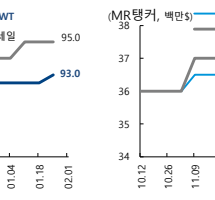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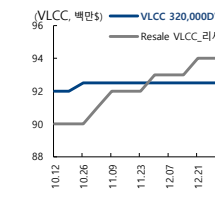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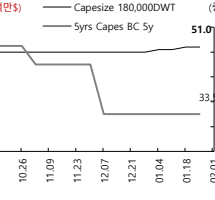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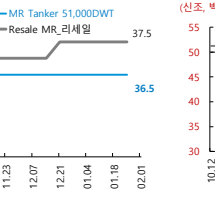
### ▶ 가스선들



### ▶ 탱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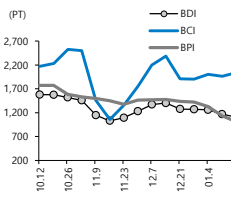


### ▶ 벌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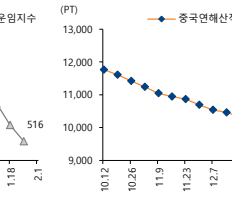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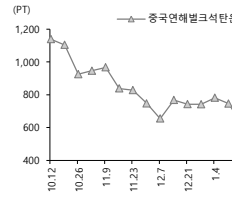


##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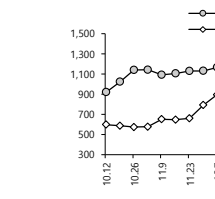
###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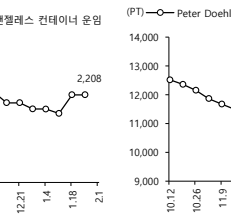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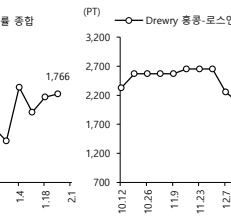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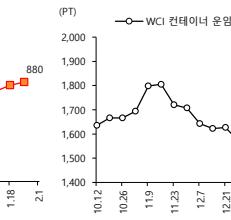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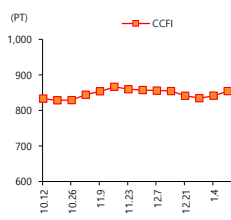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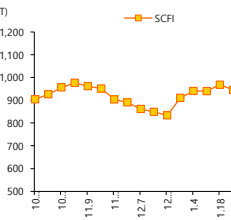
### ▶ 중국



###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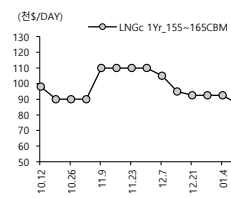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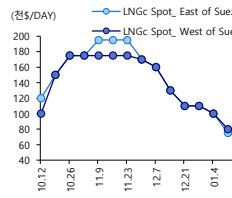


##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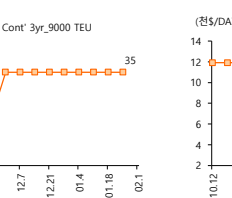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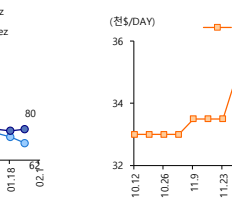
### ▶ LNG선 용선료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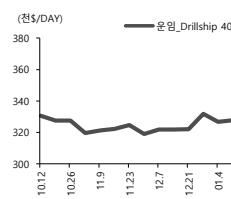
###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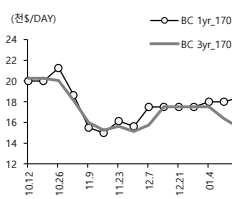
###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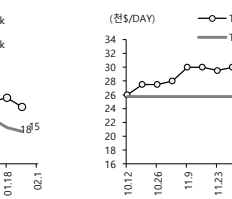
###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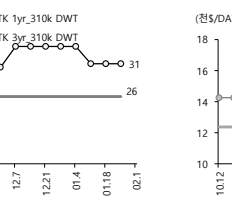
### ▶ 벌크 - 케이프



### ▶ 탱커 - VLCC



###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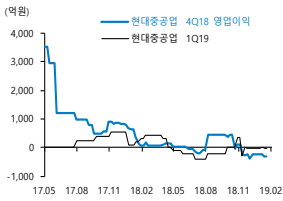


# 비 중공업 F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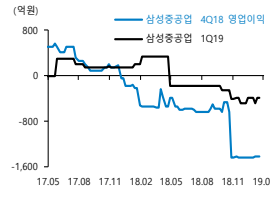


##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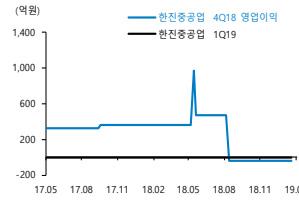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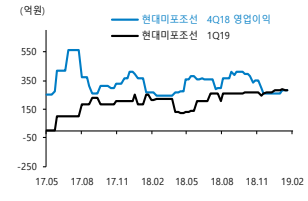
###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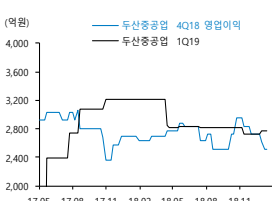
###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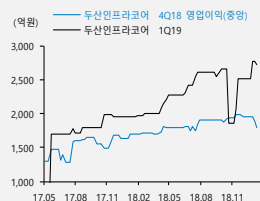
###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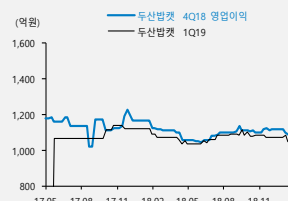
###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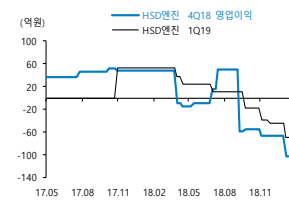
###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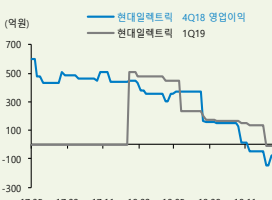
###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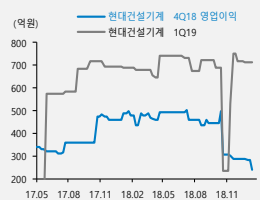
###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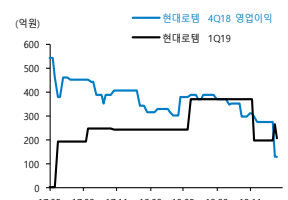
###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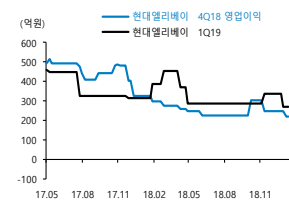
###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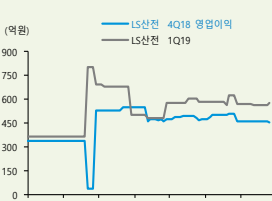
###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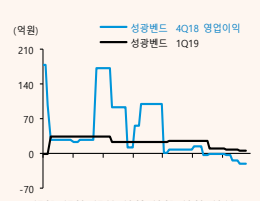
###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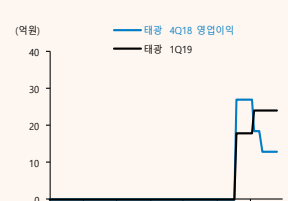
###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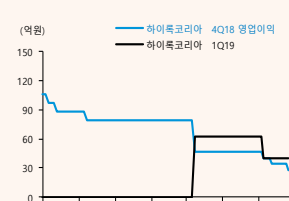
### ▶ 성광벤드



### ▶ 태광



###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29	19.01.05	19.01.12	19.01.19	19.01.25	1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3,855	-4,761	-4,813	-5,300	-2,311	-2,201	-2,451	-2,437	-2,474	적지	적지	-56.2	139,000	
	삼성중공업	-446	-485	-494	-688	-628	-628	-627	-624	-624	적지	적지	-12.8	7,990	
	현대미포조선	6,538	6,189	5,846	5,990	2,993	2,993	3,007	3,054	3,054	-49%	2%	21.2	64,600	
	한진중공업	-132	-551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적지	적지	-1.4	1,695	
두산	두산중공업	476	425	191	-243	-243	-235	-215	-234	-254	적지	적지	-43.7	11,100	
	두산인프라코어	1,560	1,574	1,597	1,463	1,463	1,462	1,486	1,460	1,486	2%	2%	5.8	8,630	
기계	HSD엔진	-218	-340	-462	-394	-404	-595	-595	-657	-657	적지	적지	-9.5	6,230	
	현대건설기계	12,658	12,413	12,248	4,384	4,256	4,255	4,255	4,117	4,109	-6%	-3%	12.7	52,200	
	현대일렉트릭	1,327	1,157	1,156	-7,830	-3,953	-4,554	-4,554	-4,510	-4,510	적지	적지	-5.6	25,450	
	LS산전	5,133	5,253	5,204	4,967	4,950	4,950	4,964	4,964	4,922	-1%	-1%	10.8	53,200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1,915	1,620	847	-77	-77	-77	-77	-77	-77	적지	적지	-1,500.3	116,000	
	현대로템	309	356	248	-256	-450	-450	-422	-476	-476	적지	적지	-58.7	27,950	
방산	한국항공우주	1,371	1,193	1,213	938	684	544	604	658	658	-30%	-4%	52.3	34,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95	722	701	356	317	283	283	278	239	-33%	-25%	130.9	31,250	
LIG넥스원	LIG넥스원	2,289	959	958	955	955	955	955	955	955	0%	0%	36.3	34,650	
	성광벤드	-58	-140	-31	-106	-113	-152	-152	-152	-152	적지	적지	-74.6	11,350	
태광	태광	302	302	483	449	399	399	399	399	399	-11%	0%	30.7	12,250	
	하이록코리아	1,477	1,102	1,102	957	957	957	957	957	957	0%	0%	20.2	19,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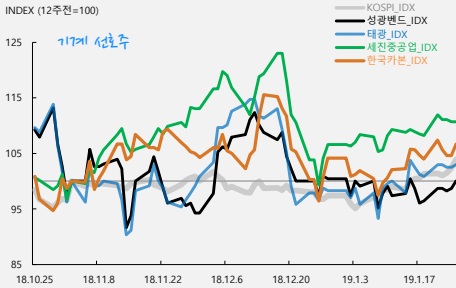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29	19.01.05	19.01.12	19.01.19	19.01.25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173,216	174,661	174,055	172,779	168,196	168,196	168,289	168,289	168,649	-1%	0%	0.8		
	삼성중공업	12,234	12,348	12,306	12,244	12,211	12,211	12,212	12,216	12,216	-5%	-1%	0.7		
	현대미포조선	116,627	115,893	115,459	116,224	58,180	58,180	58,201	58,186	58,186	5%	4%	1.6	1.1	
	한진중공업	5,338	4,514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3%	-77%	0.5	0.4	
두산	두산중공업	28,242	28,596	28,238	28,057	28,057	28,077	28,686	28,686	28,686	-1%	2%	0.4		
	두산인프라코어	9,635	9,703	9,872	9,872	9,872	9,674	9,698	9,516	9,439	16%	16%	0.9		
기계	HSD엔진	11,040	6,177	6,471	6,571	6,748	6,748	6,748	6,887	6,687	-10%	-7%	0.9		
	현대건설기계	132,950	132,426	132,496	64,822	64,830	64,830	65,079	64,871	64,855	6%	8%	0.8		
	현대일렉트릭	105,268	104,837	104,837	92,937	47,307	47,307	47,307	47,877	47,877	-9%	2%	0.5		
	LS산전	42,969	43,088	43,088	43,038	42,979	42,936	42,948	42,948	42,900	11%	12%	0.0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41,903	41,903	42,087	36,066	36,066	36,066	36,066	36,066	36,066	0%	9%	3.2		
	현대로템	16,065	16,090	15,959	15,563	15,257	15,302	15,302	15,302	15,302	-3%	3%	1.8		
방산	한국항공우주	11,856	11,585	11,566	11,200	11,042	10,965	10,965	10,948	10,948	6%	12%	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1,012	41,404	41,496	41,818	43,966	43,919	43,919	44,508	44,508	1%	3%	0.7		
LIG넥스원	LIG넥스원	28,780	27,573	27,532	27,409	27,409	27,409	27,409	27,409	27,409	3%	6%	1.3		
	성광벤드	15,988	15,960	16,009	15,957	15,904	15,838	15,838	15,838	15,838	-1%	1%	0.7		
태광	태광	17,110	17,110	16,669	16,669	16,507	16,507	16,507	16,507	16,507	2%	2%	0.7		
	하이록코리아	24,896	24,755	24,755	24,792	24,792	24,792	24,792	24,792	24,792	4%	5%	0.8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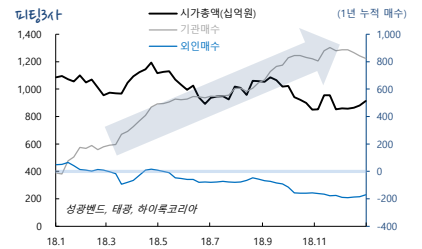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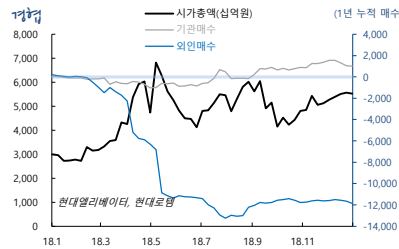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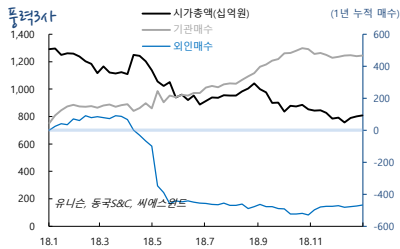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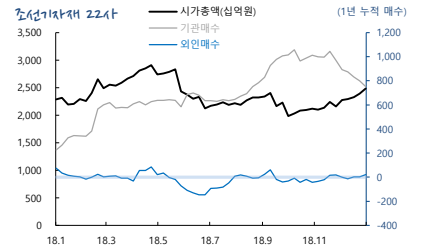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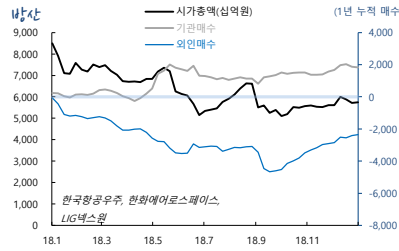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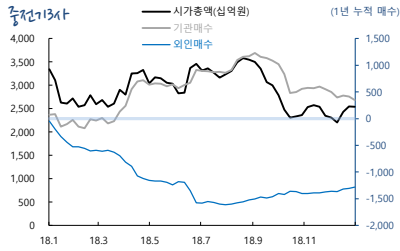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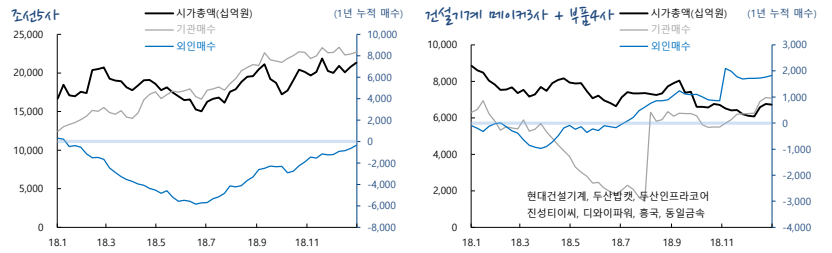
##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 당사 기계 선호주



##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 기계 업종 뉴스

### 건설기계

#### ▷ 두산밥캣,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https://bit.ly/2H4BpsLj>

두산밥캣은 특별관계자인 BlackRockInstitutionalTrust Company,N.A. 등의 지분율이 8.34%에서 7.25%로 변동했다고 21일 공시  
이번 지분 변동은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의 주식 매도에 의한 것  
한편, 두산밥캣의 15시 17분 현재주가는 33,750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변동없으며, 거래량은 147,376주

#### ▷ 두산밥캣, 인도서 딜러 콘퍼런스 열고 시장 공략 강화

<https://bit.ly/2RPF4i4>

두산밥캣은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첸나이에서 주요 경영진과 인도시장 딜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딜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힘  
이번 행사는 두산밥캣이 인도에서 콤팩트(소형) 장비 딜러를 대상으로 연 첫 콘퍼런스로,  
지난해 사업성과를 비롯해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주요 현안들을 딜러들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  
인도 소형 건설기계 시장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시장  
특히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개발 정책과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며 소형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  
두산밥캣은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제품 출시 전략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

#### ▷ 두산인프라코어, 칠레 기업에 특수장비 21대 공급

<https://bit.ly/2FQazTK>

두산인프라코어는 칠레 베살코(Besalco)와 굴삭기를 개조한 산림용 특수 장비 21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힘  
베살코는 광산, 산림, 건설 분야의 대기업으로 칠레, 페루 등에서 300여 대의 건설기계를 운용 중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미얀마 페 뽀 툰 인더스트리얼(Pyae Phyoo Tun Industrial)과도 22톤급 양식장 작업용 굴삭기 20대 공급 계약을 체결  
이 장비들은 새우 양식장 가두리 작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진흙 및 선상 작업에 적합하도록 접지력을 높인 것이 특징

#### ▷ 두산인프라코어, 中 네이멍구에 초대형 굴삭기 공급

<https://bit.ly/2HAG2ep>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광산 회사인 네이멍구 몽신 석탄 유한책임회사(이하 몽신집단)과 대규모 굴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  
공급 규모는 80톤급 초대형 굴삭기(DX800) 6대, 52톤급(DX520) 20대, 38톤급(DX380) 10대 등 총 36대  
이들 굴삭기는 중국 광산 밀집 지역인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사용될 예정  
광산 4곳을 운영하며 연간 약 2000만톤의 석탄을 채굴하는 몽신집단은 대형 굴삭기 100여 대와 휠로더 30대 이상을 운용하는 대형 고객사  
그간 타사 제품을 사용해 오다 2개월간의 장비 시험 운용을 통해 작업성능과 연비 등 효율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인 '두산케어(DoosanCARE)'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두산인프라코어 제품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 큰 기계

#### ▷ 현대로템, 작년 영업손실 1천962억원...적자전환

<https://bit.ly/2HwJki1>

현대로템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천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공시  
매출액은 2조4천119억원으로 11.5%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3천80억원으로 적자가 확  
회사 측은 "전사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확대했고 해외 플랜트 사업 원가가 상승했다"고 설명

# HI 기계 ChartBook



##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822	1.0%	26.5%	-11.1%		-49%	
	두산인프라코어	3,280	1.5%	15.8%	-3.8%		-24%	
대형	두산밥캇	3,280	-2.2%	6.1%	-14.3%		-9%	
	CATERPILLAR	88,596	0.2%	10.4%	4.9%		-16%	120%
중형	KOMATSU	28,397	3.9%	23.7%	-7.5%		-31%	61%
	HITACHI CM	6,748	1.8%	12.8%	-18.9%		-35%	60%
소형	VOLVO	37,036	0.0%	9.0%	-6.5%		-21%	61%
	SANY	9,741	5.0%	8.0%	15.8%		-6%	89%
부품	XCMG	4,493	-2.1%	0.0%	-1.8%		-33%	9%
	DEERE	47,942	-1.9%	13.3%	11.3%		-4%	110%
건설기계	CNHI	16,348	-0.7%	15.0%	-3.4%		-32%	63%
	TAKEUCHI	1,317	1.6%	20.7%	-21.7%		-29%	5%
부품	TEREX	2,994	-2.7%	9.0%	-9.3%		-39%	34%
	디와이퍼워	167	-0.3%	19.5%	14.9%		-32%	215%
부품	진성티에이치	174	0.2%	21.4%	6.0%		-39%	69%
	우림기계	56	-1.0%	20.6%	3.6%		-4%	20%
중국	홍국	59	0.5%	6.4%	31.9%		49%	215%
	동일금속	67	5.7%	4.2%	5.7%		27%	26%
일본	KUBOTA	20,295	0.4%	13.4%	-7.7%		-23%	-3%
	가야바	1,045	3.5%	21.9%	1.8%		-56%	-13%
중국	Hengli	2,806	5.2%	21.5%	25.9%		-1%	220%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방위산업 / 항공부품								
항공	한국항공우주	3,945	0.4%	11.9%	7.0%		-38%	-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2	2.1%	-1.1%	7.6%		-8%	-3%
방산	LIG넥스원	212	-3.5%	3.9%	3.0%		-41%	-73%
	아스트	212	3.4%	20.6%	1.2%		-48%	-49%
미국	Boeing	208,880	-0.1%	16.0%	2.7%		8%	203%
	LOCKHEED MARTIN CORP	97,743	1.5%	14.1%	-11.9%		-15%	36%
독일	Northrop grumman	55,307	1.9%	17.3%	-10.9%		-17%	47%
	EADS	95,076	3.5%	17.2%	-2.5%		-1%	175%
프랑스	BOMBARDIER	8,437	-5.6%	8.7%	-46.0%		-48%	124%
	EMBRARER	3,497	-1.5%	-5.9%	3.6%		-18%	-28%
영국	ROLLS ROYCE	24,242	-2.9%	8.5%	0.2%		3%	57%
	ROCKWELL COLLINS	23,154	0.0%	0.0%	7.5%		2%	174%
미국	HARRIS CORPORATION	19,745	0.5%	11.9%	-14.7%		0%	65%
	GENERAL DYNAMICS	60,622	1.6%	13.2%	-9.5%		-23%	28%
프랑스	SAFRAN	61,753	0.4%	8.8%	2.8%		25%	85%
	SPIRIT AERO	9,621	0.3%	17.8%	-3.3%		-21%	88%
미국	TRIUMPH	1,161	20.7%	35.9%	-8.3%		-40%	-33%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공작기계 / 기타 철								
공작기계	화천기계	94	3.7%	5.6%	-0.8%		-27%	-17%
	와이지원	307	0.1%	5.9%	-3.4%		-46%	-4%
기타	신진에스엠	55	4.9%	9.4%	-4.8%		-38%	-57%
	S&T중공업	197	-0.8%	1.3%	13.5%		-8%	-41%
중국	Shenyang	813	-15.0%	10.1%	14.5%		-32%	-53%
	Amada	3,927	2.4%	16.9%	-0.5%		-31%	-1%
일본	Moriseiki	2,092	6.7%	29.2%	-13.1%		-40%	28%
	Jtekt	4,983	2.5%	22.3%	-7.9%		-27%	-26%
미국	Okuma	1,862	3.7%	13.9%	-3.8%		-25%	25%
	Makino	1,081	3.7%	26.7%	2.5%		-25%	478%
독일	Schuler	1,082	-10.7%	-3.6%	-11.8%		-22%	-3%
	Gildemeister	4,124	-0.5%	1.2%	-1.5%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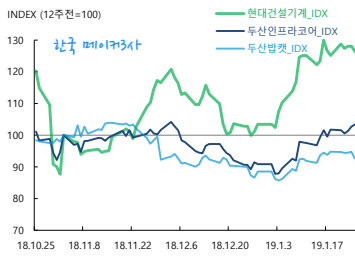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피팅	성광벤드	325	3.7%	2.7%	8.8%		-9%	29%
	태광	341	2.1%	3.5%	7.2%		15%	45%
발전	하이록코리아	286	3.2%	13.9%	5.1%		24%	27%
	두산중공업	1,561	2.8%	13.6%	-10.1%		31%	34%
중전기	비에이치아이	89	4.0%	13.7%	23.1%		20%	33%
	S&T	100	1.2%	3.4%	-2.1%		26%	46%
중국	DONGFANG	3,299	3.7%	13.8%	33.6%		19%	14%
	BHEL	3,761	5.9%	7.0%	9.5%		34%	28%
일본	MHI	12,498	0.7%	3.2%	2.8%		2%	10%
	IHI	6,105	2.7%	13.1%	25.4%		11%	33%
독일	SIEMENS	108,438	0.4%	2.9%	0.0%		15%	14%
	General Electric	110,029	1.1%	24.0%	27.1%		42%	69%
프랑스	ALSTOM	10,311	3.6%	3.0%	4.6%		1%	47%
	LS산전	2,059	0.9%	3.4%	3.5%		24%	31%
중국	효성중공업	594	3.7%	3.1%	6.5%		58%	
	현대일렉트릭	570	3.6%	13.4%	25.7%		58%	
스위스	ABB	52,239	0.5%	3.1%	7.8%		24%	10%
	Schneider	46,621	1.5%	3.5%	3.9%		16%	25%
미국	WEG	9,660	0.6%	13.7%	3.5%		0%	58%
	Crompton Greaves	1,918	5.0%	5.2%	3.8%		9%	
중국	TBEA	3,795	0.3%	3.1%	3.4%		26%	12%
	씨에스윈드	495	1.8%	3.4%	-1.2%		18%	31%
미국	유니슨	179	3.0%	-0.3%	5.2%		60%	11%
	동국S&C	212	2.7%	3.4%	0.9%		48%	31%
중국	태용	256	2.2%	12.3%	5.5%		54%	18%
	VESTAS	13,561	-0.1%	3.4%	3.3%		32%	16%
미국	GOLDWIND	5,672	3.1%	13.6%	23.1%		34%	4%
	NORDEX	1,051	10.2%	23.4%	13.1%		10%	67%
중국	GOLDWIND	5,672	3.1%	13.6%	23.0%		34%	-4%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합								
철도	현대로템	2,285	-2.8%	3.7%	0.4%		62%	130%
	ALSTOM	10,311	5.6%	5.0%	-4.6%		1%	47%
중전기	안saldo	2,925	0.0%	-0.2%	7.3%		3%	29%
	Bombardier	8,437	-5.6%	8.7%	-46.0%		-48%	124%
중국	CNR	64,357	1.0%	14.4%	-0.2%		15%	45%
	CAF	1,478	1.2%	12.0%	13.0%		3%	56%
중국	CSR	33,804	2.3%	4.8%	14.8%		1%	9%
	현대엘리베이터	2,554	0.9%	18.7%	13.2%		88%	138%
일본	KONE	28,609	-2.2%	3.8%	5.1%		-1%	7%
	UTC(OTIS)	111,677	1.7%	9.2%	-9.5%		-14%	32%
독일	SCHINDLER	26,134	0.3%	8.4%	-5.5%		-7%	31%
	THYSSENKRUPP	14,554	-3.5%	1.0%	-20.9%		-41%	8%
일본	MITSUBISHI ELEC.	29,169	2.7%	16.9%	-1.9%		-31%	25%
	HITACHI	32,140	-2.7%	19.8%	-1.2%		-25%	477%
중국	SHANGHAI ELEC.	9,990	3.0%	7.9%	7.5%		-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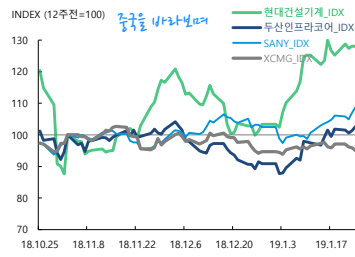


##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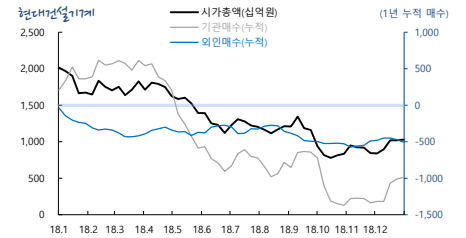
###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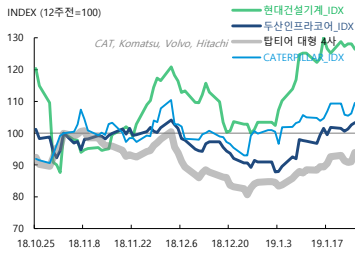
###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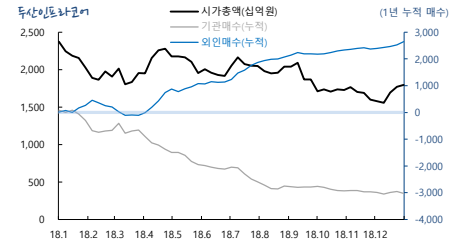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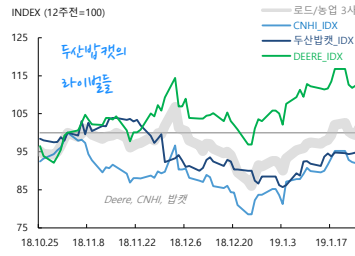
##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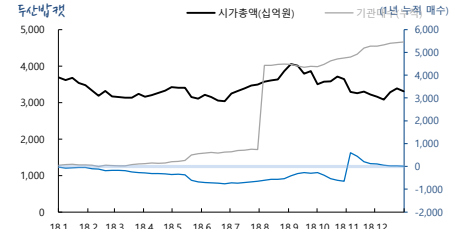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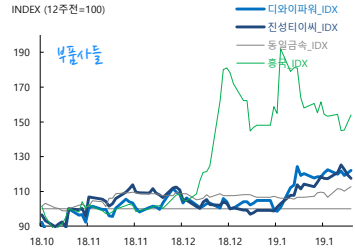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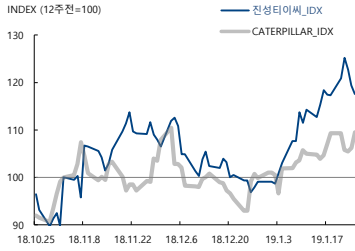
###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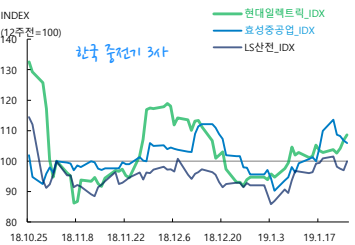


###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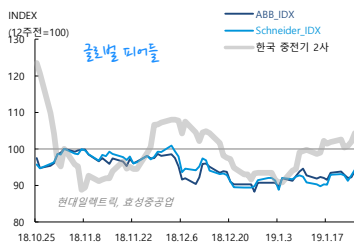


## 증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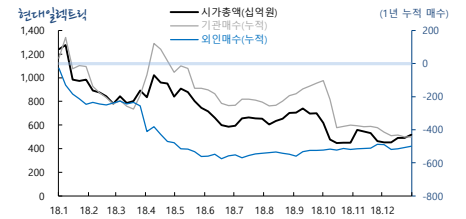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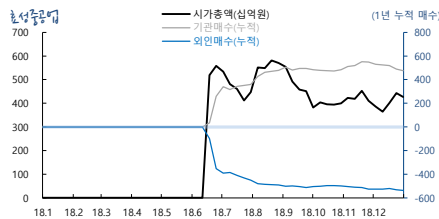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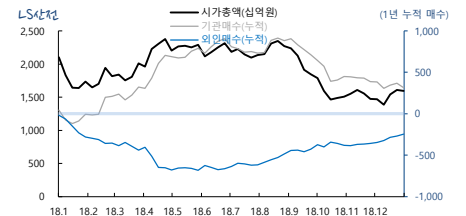
### ▶ 한국 증전기 3총사



### ▶ 글로벌 피어 2사



## 증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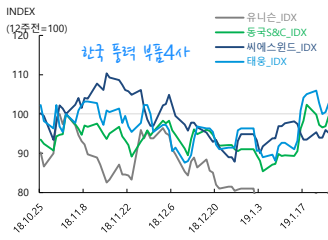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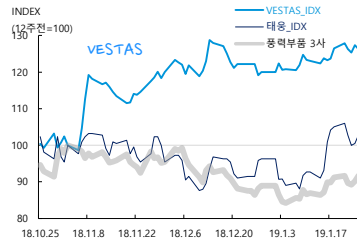


##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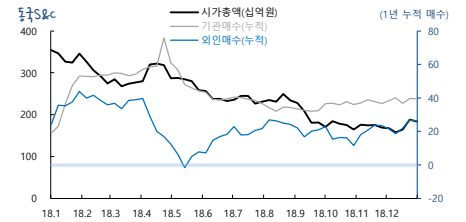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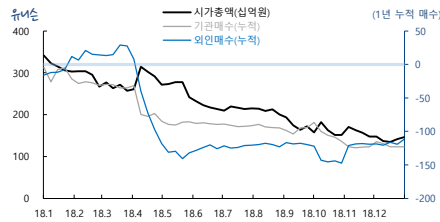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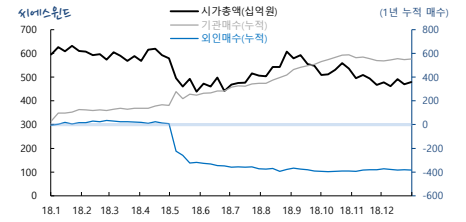
### ▶ 한국 풍력 부품4사



###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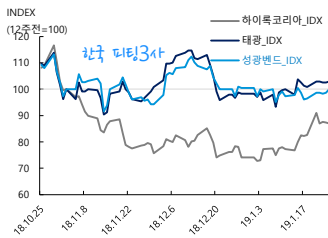


##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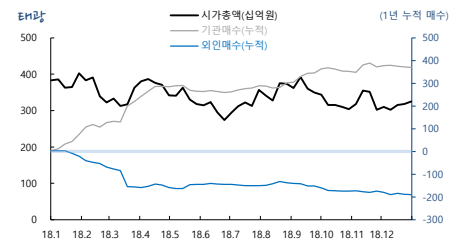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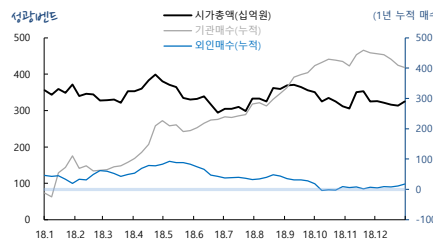


##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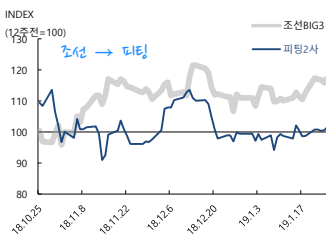
###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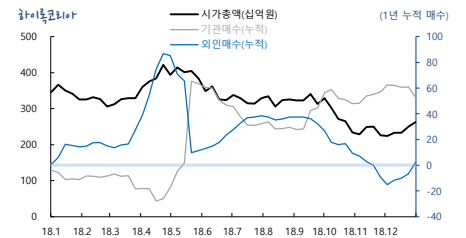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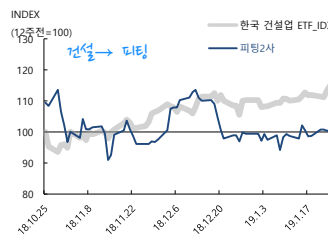
##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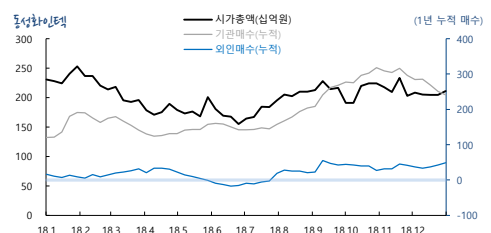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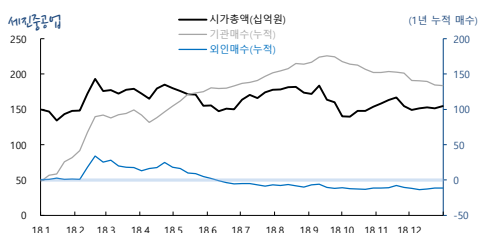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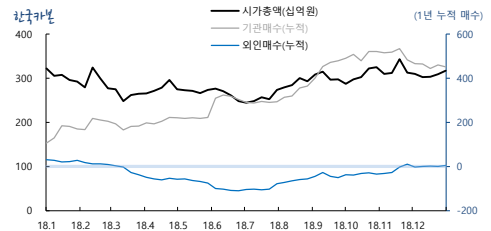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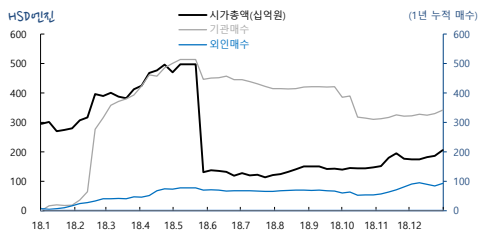
### ▶ 조선 → 피팅2사



###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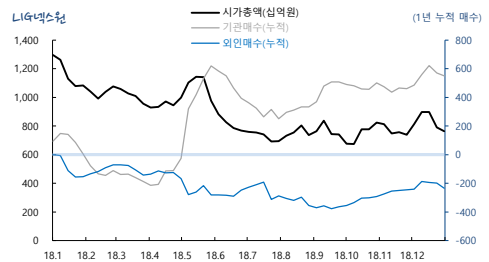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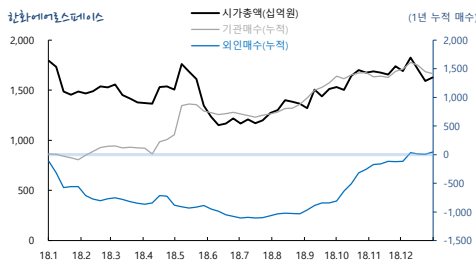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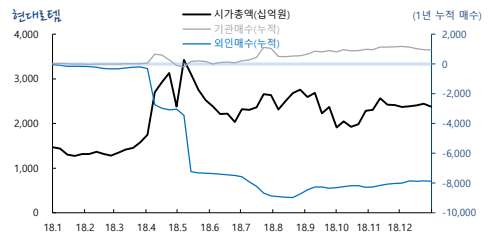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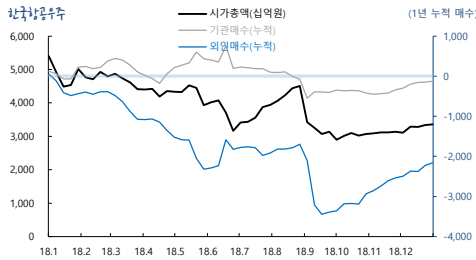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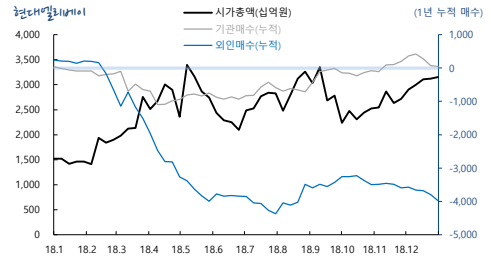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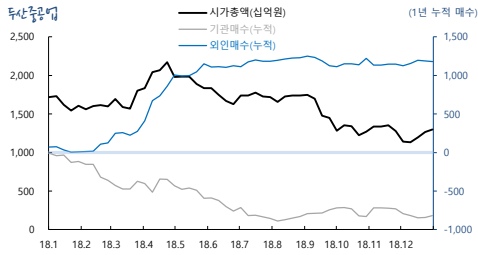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수급





## 기타 큰 기계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외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0.09%	9.10%	-